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체험을 통한 안전체험교육으로 안전역량 강화

기사입력 2025-04-28 20:02:34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체험하며 경각심 높여



안전벨트 체험을 통한 체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가 28일 DL케미칼 대덕 연구소의 안전체험학교에서 30여 명의 저연차 공사감독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 및 예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중량물 인양작업 체험, 고소작업대 체험 등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위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실습했고, 추락과 협착 등 안전사고를 실제 체험해보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느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부

나경화 기자

nakh67@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